

고3 수험생 3월 학력평가 활용법

1년 학습계획 세우는 척도 영역별 점수분석 약점 보강

이제 수험생들은 대입이라는 긴 레이스를 시작하는 출발점에 있다. 최근 광주·전남 등 전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치러진 3월 학력평가는 수능성적을 가능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3 수험생에게는 심리적 압박이 강한 시험이다. 하지만 고3 수험생만을 대상으로 한 3월 학력평가의 결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학습 계획을 세우는 척도로 삼는 것이 현명하다. 대입 전문업체인 진학사의 도움으로 3월 학력평가 성적 활용법을 살펴봤다.

내 성적 정확히 파악 동기부여 계기로

◇ 성적에 연연하지 말자=3월 학력평가는 성적이 잘 나왔는지, 못 나왔는지에 대해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되는 시험이다. 시험성적이 잘 나왔다면 2학년 마지막 방학을 효과적으로 보내 덕분으로 생각하면 되고,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다면 그동안의 학습 방식을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통해 앞으로의 학습계획을 세우는 척도로 삼으면 된다.

◇ 6월까지의 학습계획을 세우는데 참고하자=3월 학력평가 시험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것이 좋다.

첫 시험인 만큼 본인이 실수로 틀린 것인지, 모르는 부분은 무엇인지, 어떤 영역이 유·불리하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3월 학력평가가 재수생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수험생이 치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성적표 상에서 수험생이 눈여겨 봄 부분은 백분위 점수다. 표준점수는 표준편차와 평균 등에 의해 계속 변하는 점수이

그러나 6월 평가원 모의평가 전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까지의 학습계획을 세우는 데는 유용하다. 내가 좀 더 집중해야 할 영역과 과목을 판단해 실천 가능한 학습계획을 세우고, 이를 보완하는데 노력하도록 하자.

◇ 영역별 점수를 분석해 약점을 보강하자=3월 학력평가는 시작 일 뿐이다. 3월 학력평가 점수를 포함해 앞으로 평가원, 교육청, 사설모의고사의 영역별 성적을 월별로 분석해 약점이 있는 영역을 보강해야 한다. 이때 월별 점수변화 추이는 원점수나 표준점수가 아닌 백분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정확하다. 또한 언어, 수리, 외국어 등 배점이 높은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하면 고득점이 어렵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 문항분석표를 만들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자=영역별로 문항분석표를 만들어보자. 문항분석표는 관련 단원과 난이도를 표시하는 것이다. 본인이 틀린 문제라면 왜 틀렸는지도 메모해 두자. 이렇게 정리해두면 어떤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지, 어느 단원의 출제 비중이 높은지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문항 하나하나를 분석하다 보면 출제자의 의도와 출제과정을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한국 배우러 왔어요”

18일 오전 조선대(총장 전호중) 법대 모의법정에서 개최된 ‘2010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외국인 학생

미안마 1명 등 총 48명이다.

광주과학기술원

김연주·박태규 교수

대통령 과학장학생



김연주군 박태규군

광주과학기술원(총장 선 우중호) 김연주 교수와 박태규 교수는 최근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대통령 과학장학생’에 선정됐다. 특히, 두 사람 모두 광주 출신의 지역 우수 인재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대통령 장학생은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 측면 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국내 외 자연 및 공학계열 대학에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부과정 최대 4년간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200만원의 학업장려비가 지급된다. 금년에는 전국에서 총 126명의 우수 학생이 장학생에 선발됐다.

이번에 장학생으로 선정된 김연주교수와 박태규교수는 광주 과학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하고,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된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광주과기원에 입학한 ‘지역 인재’다. /체희증기자 chae@

기초학습 부진 학생 96% 구제

광주시교육청 작년 초·중·고 823명 책임지도 기초학력 해결

광주시교육청이 기초학습 부진 학생을 96% 구제하는 성과를 올렸다.

18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첫 진단평가 후 기초학력이 떨어진 학생 854명에 대해 책임지도제 등을 시행, 31명을 제외한 823명(96.4%)을 구제했다. ‘3R’로 불리는 이 진단 평가는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다. 첫 진단 결과 초등학생은 654명, 중학생 181명, 고등학생 19명이었다.

시 교육청은 해당 학교 교감을 책

임관으로, 담임이 책임자가 돼 부진 학생을 구제하는 책임제를 시행했다.

또 부진학생 전담 교사 중 100여명으로 구성된 팀을 구성해 해당 학교 등을 서로 방문하고 효율적인 지도방법, 정보 등을 교환했다. 특히 1천여 편에 달하는 부진학생 지원용 학습자료를 개발, 내부 게시판 등에 올려 수업 효과를 극대화했다.

학습지도 기법이 풍부한 퇴직교원을 방과 후 강사로 초빙해 부진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하는 등 기초학습 부진학생 제로화도 추진했다.

시 교육청은 우수 지도교원에게는 인사고와 반영 등 과격적인 인센티브와 표창을 수여하는 등 지도의욕을 높였다.

이 같은 노력에 따라 지난해 6월 1차 평가에서 절반을 약간 넘은 53%가 익기, 쓰기 등에 성공했고 9월, 12월에 76%, 84%까지 끌어 올리고 지난달 최종 평가에서 96.4%를 달성했다.

시 교육청 문재옥 장학관은 “교사에게는 책임의식을 주고 학생에게는 신뢰를 줘 부진학생 제로화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

교원 전국 공개채용·교육환경 개선·사재 장학금



목포중앙고 명문고 도약 초석 다졌다

김호남 이사장 취임 2년

사업 가이지만 문화가로 더 유명한 목포중앙고등학교 김호남 이사장(근화건설 대표이사·사진)의 남

다른 교육 철학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08년 2월 목포중앙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그는 교장공모제와 교사 전국 공개채용 등 투명한 교원 인사를 통해 학교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했다.

특히 노후화된 교실과 실습실

등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신입생 모집마저 힘들었던 목포중앙고를 지역을 대표하는 고교로 만들어 냈다.

김 이사장은 또 산다회꽃, 개민나무 가로수 길과 어우러진 4차선 도로를 교문 앞까지 개통하고 사례를 출연해 ‘꿈이 꽂이는 장학회’를 신설,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국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 40

명의 유능한 교사진도 큰 자랑거

리다. 이들은 차별화된 방과후

자율학습 지도와 각종 수업 연구

등으로 학생지도에 주력하고 있

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목포중앙고는 2010학년도 입시에서 전국대와 동국대, 단국대, 전남대 등 4년제 대학에 62명을 합격시켰다.

한편 목포중앙고는 정보처리

(IT), 영상미디어, 조선디자인과

등 3개과에 576명이 재학중이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한국어 교원 양성·어린이 영어 TESOL 과정

광주여대 대학원 개설…31일까지 등록 접수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오장원) 대학원은 비학위 단기과정으로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과 ‘어린이영어 TESOL과정’을 개설했다.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은 세계 각국의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양질의 한국어 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과정 수료자에게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한국교육 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시험에 합격할 경우

한국어교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광주여대 해외 자매결연 대학의 한국어 강사로 임용과 견이 가능하다.

어린이영어 TESOL과정은 유아에서 초등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전문적인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됐다.

상임 및 비상임 입학사정관과 입학처 직원들이 참여한 이날 교육에서는 강대창 전국진학지도협의회 공동대표(여수 화양고 교사)가 ‘고교 교육과정의 이해 및 교육내용 평가’를 발표했다. /체희증기자 chae@kwangju.co.kr

법률 경로부동산의 브리핑

